

### 광주시, 노인복지 증진 위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관내 비영리 단체·노인복지시설 대상...총 1억원 지원

1~3세대 통합·권익 향상·사회참여 활성화 등 추진

광주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1~3세대 통합,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보급, 노인 권익 향상,

사회참여 활성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이다. 참여 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증진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관 등으

로,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고령사회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사업은 기금사용 목적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최근 추진사업 실적 등을 심사해 1개 단체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한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관이나 단

체에 노인 일자리 창출, 건강·여가 프로그램 보급, 취약계층 노인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총 30억원)으로 매년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9억원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사업이 종료되는 12월에는 사업에 참여한 각 단체들과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사업추진 성과발표, 전문위원 컨설팅, 개선방향 제시 등 노인복

지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임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해 어르신들께 실용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단체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 완도군, 노화읍 전역 치매 안심마을 선정

치매 선별검사·인식 개선 교육·사례 관리 등 서비스 지원

완도군은 노화읍을 제3호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지난 16일 노화읍사무소와 노화노인분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치매 안심마을은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으로 확대 선정하였으며, 제1호 신지읍촌마을과 제2호 완도 정도마을에 이어 제3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노화읍은 도서 지역이라는 점과 전역이 선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는 노인회장단, 마을 이장, 자원봉사단체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가 있어도 일상에서 이웃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치매에 대해 올바

르게 이해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화읍은 주민 5,221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1,667명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32%를 차지하고, 배를 타고 50여 분을 이동하는 섬 지역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치매 선별검사, △치매 인식개선 교육,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 극복 선도단체 양성, △치매 안심마을 환원식, △치매 환자 및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 김모 씨



는 “노화도가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어서 기쁘고,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보니 치매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황승미 건강증진과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가족 및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며 “치매 안심마을이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완도=이민혁기자



### 보성군 벌교읍, 맞춤형 복지실현

‘결혼이주여성 생일상 챙겨주기’ 시책 추진

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1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생일상 챙겨주기’ 시책을 추진한다.

18일 벌교읍희망드림협의회(신남규, 조효의 위원장)는 회원 16명과 관내 거주 저소득 및 취약계층 결혼이주여성 60여 명을 자매결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응원할 방침이다.

희망드림협의회는 이주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알고 접할 수 있도록 키조개 미역국과 잡채, 냉이나물 등 우리나라 방식의 생일상을 준비해 생일을 맞이한 이주여성 가정에 전달했다.

또한,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어업회사법인 (주)벌교 꼬막(대표 서흥석)에서는 대표 제품인 ‘벌교 꼬막장’ 200개를 기증했다.

생일음식을 받아본 필리핀 출신 A씨는 “정말 뜻밖에 한국식 생일상을 받아서 너무 감동했고, 고향에 계신 가족들 생각이 더욱 많이 난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신남규 벌교읍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타국 땅에서 생일을 맞는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눔 문화가 확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장흥군 회진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시스템 가동

장흥군 회진면이 지난 15일 담장이 무너진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 개선에 나섰다.

3월 초 회진면 덕흥마을에 사는 이O덕 할머니 집의 담벼락이 일부 무너지고, 대문이 망가졌다는 이웃 주민의 민원이 접수됐다. 회진면은 가정 방문 및 사례 회의를 거쳐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이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무너진 벽 일부를 철거한

뒤,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새 담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뭉친 동네 주민들과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벽돌을 쌓고 대문을 교체하는데 참여했던 한 이웃 주민은 “볼 때마다 위태위태해 보였던 담벼락을 새로 쌓아 마음이 놓인다”며 “평소 이웃 주민과 교류가 거의 없는 할머니의 집 벽을 허물고 다시 쌓은 만

큼, 동네 주민들과의 벽도 이번 기회에 허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회진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솔선수범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복지기동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